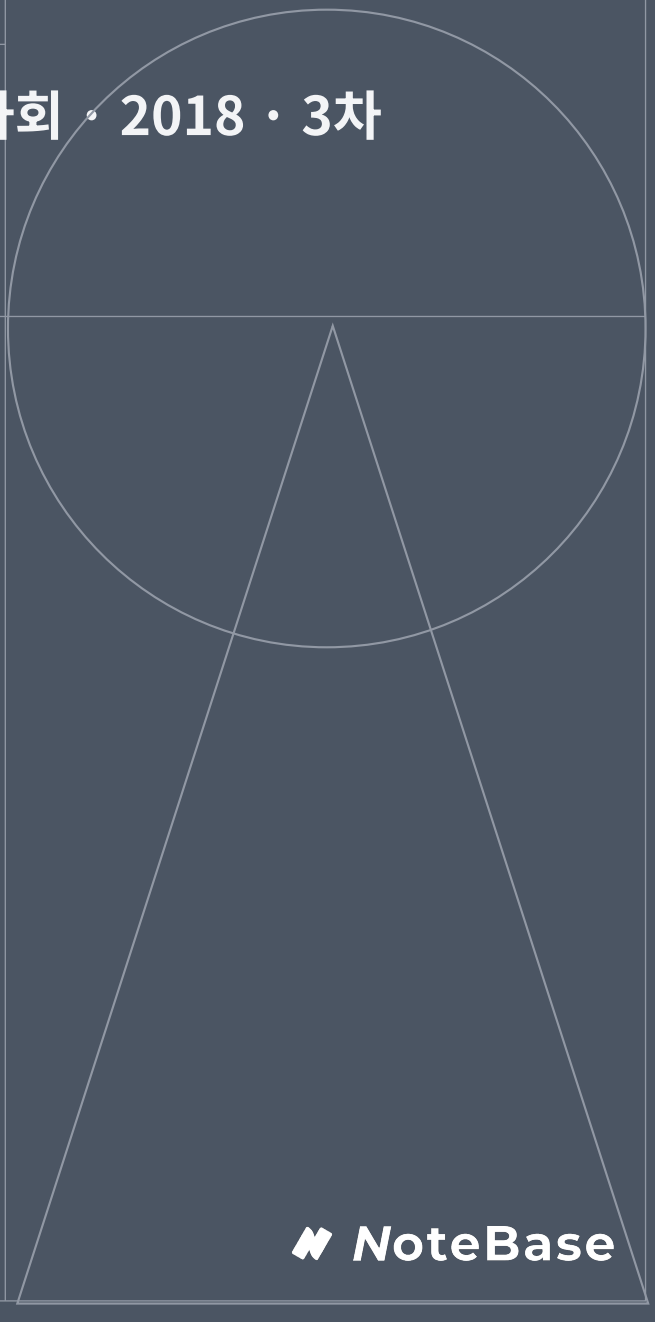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3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8 · 3차

문 1.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 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조적 복지 제도이다.

②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 제도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 등이 있다.

④ 사회 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사회 보험을 급여의 성격, 재원, 가입 방식과 비용 부담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서비스: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사회 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 보험: 질병·노령·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보험료를 분담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자에게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을 적용하며, 보험료는 대체로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회 서비스는 현금 지급보다 상담·돌봄·재활 같은 비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보완한다.
② O.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③ O.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기초 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 재원으로 일정한 생활을 보장하므로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과 '수혜 정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결정된다'이다. 실제로는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자에게 사회 보험의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료는 수혜 정도가 아니라 소득 등 부담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사회 보험의 강제 가입 원칙을 ‘모든 국민’이라는 절대적 표현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수혜 정도와 뒤바꾸었다. 사회 보험에서는 보험료와 실제 급여가 개인별로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를 미리 분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 사회 보험, 조세로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 공공 부조,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기여와 위험 대비, 공공 부조는 조세와 최저 생활,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안녕하세요? 이번에 A경찰서로 발령받은 '갑'입니다. 이번에 A경찰서 B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을: 아, 그래요? 가입을 축하합니다. 전 10년째 B동호회 활동을 해왔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슨 일을 했나요?
갑: C학원에서 영어를 3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을: 고향은 어디인가요?
갑: D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살아왔습니다.
을: 나도 D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주 반갑네요.

① 갑에게 A는 공동 사회이다.

② 갑에게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③ 을에게 B동호회는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다.

④ 갑, 을에게 D군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대화에 나타난 집단을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준거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 내집단과 외집단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동 사회는 혈연·지연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한 유대에 기초한 집단이고,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태도나 행동을 정하거나 자신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으로, 반드시 현재 소속된 집단일 필요는 없다.
1차 집단은 친밀하고 전인격적인 대면 관계가 중심인 집단이고, 2차 집단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식적·수단적 관계가 중심인 집단이다.
내집단은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끼며 '우리'라는 소속감을 갖는 집단이고, 외집단은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A경찰서는 특정 업무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이익 사회이다. 틀린 표현은 '공동 사회'이며, 올바르게는 '갑에게 A경찰서는 이익 사회이다'이다.
② O — 갑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되는 것을 꿈꾸었으므로 경찰을 자신의 진로와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경찰은 갑의 준거 집단에 해당한다.
③ X — B동호회는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집단이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 2차 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2차 집단이 아니라 1차 집단'이며, 올바르게는 '을에게 B동호회는 목적을 중심으로 형성된 2차 집단으로 볼 수 있다'이다.
④ X — 갑과 을은 모두 D군에서 태어나고 자라 D군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D군은 두 사람의 내집단이다. 틀린 표현은 '내집단이 아니라 외집단'이며, 올바르게는 '갑과 을에게 D군은 외집단이 아니라 내집단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준거 집단을 현재 소속 집단과 같다고 생각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갑은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경찰을 장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경찰은 준거 집단이다. 또한 친근한 분위기나 오랜 활동 기간만으로 동호회를 곧바로 1차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을 구분할 때는 소속 여부가 아니라 각 분류의 기준을 먼저 확인한다. 형성 원인이 자연적 유대인지 목적 달성인지, 관계가 전인격적인지 수단적인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지, '우리'라는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각각 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적 유대는 공동 사회, 목적 조직은 이익 사회, 판단의 기준은 준거 집단, '우리' 의식은 내집단이다.

NoteBase

문 3.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다음 A, B, C, D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제주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과 생각이 궁금하여 제주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조사하였다.
B: 다른 직업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한 달 동안 직접 경찰공무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조사하였다.
C: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무대가 되는 시대의 사회상이 궁금하여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D: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여 한 달 동안 30명은 스마트폰을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고 다른 30명은 사용하지 않게 하여 학습량을 측정 비교하였다.

① A: 연구 주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수치화하는 방법으로, 답지는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B: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직접 방문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연구자의 행동이 연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 기존 문헌에 담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방법에는 쓸 수 없다.

④ D: 연구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처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여러 변수를 통제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연구 사례를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문헌 연구법, 실험법으로 구분하고 각 방법의 특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질문지를 통해 응답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지법이다. B는 연구자가 대상 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이다. C는 기존 문헌과 기록에 담긴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문헌 연구법이다. D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 독립 변인을 처치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법이다. 문헌 연구법은 자료의 성격과 분석 방식에 따라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A는 상인들에게 여러 문항을 제시해 응답을 얻는 질문지법이다. 질문지법은 응답을 수치화할 수 있으며, 선택형 답지는 하나의 응답이 둘 이상의 범주에 동시에 포함되지 않도록 상호 배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O — B는 연구자가 한 달 동안 경찰공무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료를 얻으므로 참여 관찰법이다. 연구자의 존재나 행동이 연구 대상의 평소 행동을 바꾸는 반응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질적 연구 방법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 방법에는 쓸 수 없다'이다. C의 문헌 연구법은 기존 자료를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며, 문서의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뿐 아니라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④ O — D는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달리한 두 집단의 학습량을 비교하므로 실험법이다. 실험법은 변인을 통제하여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실험 외의 여러 변인을 엄격히 통제하기 어렵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문헌 연구법을 질적 연구에만 쓰는 방법으로 한정한 것이 함정이다. 문헌 연구법이라는 명칭은 자료의 출처가 기존 문헌이라는 뜻이지, 분석 방법이 질적 분석으로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를 얻는 방식에 주목한다. 질문을 제시하면 질문지법, 집단의 생활에 참여하며 관찰하면 참여 관찰법, 기존 기록을 수집·분석하면 문헌 연구법, 처치 여부가 다른 집단을 비교하면 실험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질문지는 질문, 참여 관찰은 현장 참여, 문헌 연구는 기존 자료, 실험은 처치와 집단 비교이다. 문헌 연구는 질적·양적 연구 모두에 활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4.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적 소수자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③ 사회적 소수자는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인종, 성별 등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

④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차별 개선 방안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적 소수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지배적인 집단과 구별되고, 권력이나 자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차별받는 집단이다. 인원수가 적은지는 결정 기준이 아니며, 소수자를 구분하는 특성은 선천적일 수도 후천적일 수도 있다. 차별 개선 방안은 개인의 편견을 줄이는 의식적 방안과 법·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나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원이 적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구성원의 수보다 사회적 권력과 자원에서 열세에 놓여 차별받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후천적 요인이 아니라 … 선천적 요인에 의해 구분된다'이다. 실제로는 인종·성별 같은 선천적 특성뿐 아니라 장애, 국적, 종교 등 후천적으로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는 특성도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개인의 의식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불리한 집단에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이다.

오답 포인트

'소수자'라는 말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차별을 줄인다는 목적만 보고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개인의 인식 개선과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②의 '인원이 적다', ③의 '선천적 요인만', ④의 '개인의 의식적 측면'이 각각 틀린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 열세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의 열세와 차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한 원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보다 그 특성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지를 확인한다. 법률·정책·할당처럼 구조를 바꾸는 조치는 제도적 방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소수자는 '적은 수'가 아니라 '약한 사회적 지위와 차별'이 핵심이며,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제도적 방안이다.

NoteBase

문 5. 우리나라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무 회의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이다.

④ 감사원은 결산,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등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부의 주요 기관과 그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통령·국회·국무총리·국무회의·감사원의 권한과 소속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임명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이다. 해임 건의권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권한이다.

핵심 구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을 가지지만, 탄핵소추 의결권은 국회에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통령은 헌법상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주체는
국회이다. 틀린 표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국회가 대통령 등 헌법상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O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X — 국무회의 구성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으며, 국무회의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틀린 표현: '직접 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최고의 의결 기관'
올바르게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 심의 기관이다.
④ X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지만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다. 틀린 표현: '결산을 맡고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올바르게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탄핵소추권을 가진다는 뜻으로 바꾼 함정이다. ③은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을 '의결' 기능으로 바꾸었고, ④는 감사원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부 기관 문제에서는 먼저 권한의 주체와 기관의 소속을 확인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해임 건의권,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 감사원의 대통령 소속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은 긴급명령·계엄, 국회는 탄핵소추,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해임 건의, 국무회의는 심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대화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녀: 젊었을 때 어떤 헤어스타일을 즐겨 하셨나요?
할아버지: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다녔지. 단속에 걸리면 잘리니까 항상 긴장하면서도 재미있었지.
손녀: 그렇게 불안한데도 왜 그런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할아버지: 일종의 반항이라고나 할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손녀: 하하,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① 때로는 법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②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상황,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③ 그 원인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④ 이 유형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대화 속 장발은 당시 사회 규범과 단속 기준에서 벗어난 일탈 행동이다. 이 문제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과 원인, 그리고 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핵심 개념

일탈 행동은 한 사회나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 일탈인지는 행동 자체의 고정된 속성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사회·집단의 규범과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일탈 행동은 관습이나 도덕 규범뿐 아니라 법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일탈을 판단하는 규범은 시대·상황·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대화의 장발도 당시에는 단속 대상이었지만 다른 시대에는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O — 일탈 행동의 원인은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서 찾기도 하고, 사회 구조와 환경의 영향에서 찾기도 하므로 적절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어떤 행동이 일탈에 속하는지는 행동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사회의 규범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눈에 보이는 행동의 내용만 확인하면 일탈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그러나 같은 장발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탈로 평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사회적 평가를 배제한 부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탈 행동 선지에서는 '행동 자체만으로 결정된다'는 표현을 먼저 점검한다. 일탈의 판단 기준은 사회 규범이며, 그 규범과 평가는 시대·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일탈은 행동 자체의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 규범과 평가에 따른 상대적 판단이다.

NoteBase

문 7.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A교수의 관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A교수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은 시각 매체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자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더 고차적인 문화로의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의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퇴보하고 붕괴하기도 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①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② 사회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③ 사회나 문명도 생명을 가진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④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고 각 부분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변동을 순환론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나타나는 핵심 특징을 묻는다.

핵심 개념

순환론은 사회나 문명이 생성·성장·쇠퇴·소멸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 변동을 언제나 한 방향의 진보로 보지 않고, 퇴보와 붕괴 및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한다고 본다.
갈등론은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고,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상호 의존과 균형 회복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더욱 진화한 사회가 덜 진화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표현은 경쟁과 적자생존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적 설명이다. 순환론의 설명으로 고치면 사회나 문명은 성장한 뒤 쇠퇴하거나 소멸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X
'피지배 집단의 저항이 커지면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갈등을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갈등론의 설명이다. 순환론의 설명으로 고치면 사회나 문명이 생성·성장·쇠퇴·소멸의 주기를 반복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사회나 문명이 유기체처럼 생성과 성장, 쇠퇴와 소멸을 되풀이한다는 설명은 순환론의 핵심 내용이다. 문명의 발전이 계속되지 않고 퇴보·붕괴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A교수의 주장과 일치한다.

④ X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질서와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는 표현은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는 기능론의 설명이다. 순환론의 설명으로 고치면 사회나 문명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지문에 '발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해서 진화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A교수는 발전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고 퇴보와 붕괴를 거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므로, 결정적 단서는 '회귀'와 '반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 변동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한 방향의 지속적 발전이면 진화론, 생성·성장·쇠퇴·소멸의 반복이면 순환론, 집단 간 대립이 변동의 원인이면 갈등론, 상호 의존과 균형 회복을 강조하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화론은 직선적 발전, 순환론은 흥망성쇠의 반복이다.

NoteBase

문 8. A문화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시작된 A문화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인간성의 회복, 자연으로의 귀의를 추구했다. 베트남 전쟁,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등의 사건을 계기로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소비자본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사상을 음악, 미술, 문학 등의 형태로 표현하곤 했다.

①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대중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

② 전체 문화의 획일성을 방지하고 하위 집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사회의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일탈적인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A문화가 지배 문화의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는 반문화임을 파악하고, 반문화의 특징을 대중문화의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문화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립하는 하위문화이다. 하위문화는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독특한 문화이며 전체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다수의 사람이 향유하는 문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대중의 기호와 수준을 고려하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전파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대중문화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A문화가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반문화라고 해야 한다.
② O — 반문화도 하위문화의 한 유형이므로 지배 문화 일변도의 획일성을 완화하고 사회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③ O — 반문화는 지배 문화의 핵심 가치나 규범을 거부하므로 지배 문화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가치 대립을 보일 수 있다.
④ O — 반문화가 사회의 기본 규범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A문화가 음악·미술·문학으로 표현되고 널리 알려졌다는 점만 보고 ①의 대중문화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분류의 기준은 표현 수단이 아니라 '기존 가치관의 거부와 지배 문화에 대한 대립'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서 '기존 가치와 규범의 거부·대립'이 핵심이면 반문화로 판단한다. '대중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전파와 다수의 향유'가 핵심이면 대중문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문화는 지배 문화에 저항하는 하위문화이고,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향유되는 문화이다.

NoteBase

문 9. A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 1/3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게 배분합니다.

①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②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③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

④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진출이 비교적 쉬워 새로운 정치세력이 잘 나타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서 선거공영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찾아 각 선지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금권 선거를 막는 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며,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쉽고 사표가 적게 발생하는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를 줄이는 제도이다.
A국은 국가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고,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며,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이 세 제도를 함께 운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당락 왜곡이 작아 게리맨더링이 비교적 어렵다.
② O — 선거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선거공영제에 해당하며, 선거 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X —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정당 간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A국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실시하므로 올바르게는 '사표가 비교적 적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줄어든다'이다.
④ O —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고 일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므로 소선거구제보다 소수파와 새로운 정치세력이 의석을 얻기 쉽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와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크다’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A국의 제도에 바꾸어 붙인 표현이다. 제시문의 ‘한 선거구에서 3명’과 ‘득표율에 따라 배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선거 비용 부담은 선거공영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은 중·대선거구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은 비례대표제로 연결한다. 사표와 득표율·의석률의 불일치가 크다는 표현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의 특징인지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국가 부담은 공영제, 여러 명 선출은 중·대선거구제, 득표율대로 의석 배분은 비례대표제이다.

NoteBase

문 10. 상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필 증서, 녹음, 임종 직전의 유언 등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② 고인에게 빚이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언에서의 언급이나 유언 자체가 없는 경우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④ 관련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유언의 법정 방식,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포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인이나 법인 등에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법정상속과 구별된다.

핵심 구분

민법은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며, 각 방식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정상속에서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그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19조, 제1028조 및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에 따른 구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본인이 직접 말하거나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자필증서와 녹음도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종이 가까운 때의 말도 곧바로 유언이 되지 않는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는 등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틀린 표현: 본인이 직접 구두나 문서로 남긴 유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올바른 표현: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의 법정 요건을 갖춘 유언만 효력이 인정된다.

② O
상속인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바르게 설명한 선지이다.

③ X
자녀와 부모는 모두 동시에 같은 순위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이고 직계존속인 부모는 2순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공동상속하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몫이 아니라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몫을 받는다.
틀린 표현: 자녀와 배우자, 부모는 모두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는다.
올바른 표현: 자녀가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보다 5할 가산된 상속분을 가진다.

④ X
법정상속인은 고인과 관련된 모든 자연인·법인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배우자와 일정한 혈족이다. 법인은 유언에 따른 유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틀린 표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고인과 관련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올바른 표현: 법정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의 혈족과 배우자이며,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법정 방식의 준수를 혼동하게 하고, ③은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5할 가산을 지운 표현이다. ④는 법정상속과 유증을 같은 것으로 보게 하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언 문제에서는 먼저 법정 방식과 요건을 확인한다. 상속 문제에서는 혈족의 순위, 배우자의 공동상속 지위와 5할 가산, 채무가 있을 때의 한정승인·포기를 차례로 구분한다. 법인이 등장하면 법정상속인지 유증인지도 따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유언은 다섯 방식과 법정 요건, 상속은 자녀 우선·배우자 5할 가산, 빚은 한정승인 또는 포기이다.

NoteBase

문 11. 권리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법 행위는 타인에게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행위로 제한된다.

② 옆집 담장이 무너져서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옆집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우리 민법은 원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절차를 통해 결정된 중재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 범위, 공작물 책임의 순서, 손해배상의 방법, 중재판정의 효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면 금전배상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공작물 책임 = 담장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순서로 인정되는 배상책임이다.
중재합의 = 당사자가 일정한 사법상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94조는 손해의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제763조는 이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한다. 공작물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진다.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며, 적법한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불법행위는 고의에 한정되지 않고 과실로도 성립하며,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틀린 표현: '고의적 위법 행위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행위로 제한된다'
올바른 표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② X
담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현재 담장을 점유하는 세입자가 먼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진다.
틀린 표현: '세입자인 경우, 주인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바른 표현: 세입자인 점유자가 우선 책임지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③ O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 경우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은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원인이 무엇이든'은 손해만 생기면 언제나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 배상책임이 성립한 뒤의 배상 방법이 원칙적으로 금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④ X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중재안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 '합의하지 않더라도' 및 '중재안'
올바른 표현: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③의 '원인이 무엇이든'을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으면 혼동하기 쉽다. 이 선지는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책임이 성립한 뒤의 배상 방법인 금전배상 원칙을 묻는다. 또한 ②에서는 소유자보다 점유자가 먼저 책임진다는 순서를, ④에서는 중재판정의 효력보다 먼저 중재합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법행위 선지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범위를 확인한다.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 우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순서로 판단한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 원칙을, 중재는 중재합의가 전제된 뒤 중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구조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공작물은 점유자 우선, 배상은 금전 원칙, 중재는 합의가 전제이다.

NoteBase

문 12.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원 내각제하에서는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

② 대통령제하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구성되는 방식과 입법부·행정부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이 엄격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의원과 각료의 겸직 및 내각의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회와 내각이 모두 선거로 구성된다'는 표현이 틀리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내각은 의회 다수파를 기초로 의회의 신임을 받아 구성된다.
② O —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넘어온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O —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이므로 의원이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O —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권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달린 의원 내각제보다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쉽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의원 내각제도 민주적 정부 형태라는 점을 '의회와 내각이 모두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다'는 뜻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의원 내각제의 내각은 의회와 별도의 국민 선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파와 의회의 신임을 토대로 구성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 독립된 선거와 임기로 존립하면 대통령제, 의회 다수파와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이 성립하면 의원 내각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과 임기 보장,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과 의회 신임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된 가상의 뉴스기사이다. 제시된 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시장은 2010년 지방 선거 출마 직전 지인에게 체납 세금 5,0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에는 △△도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다음에도 △△도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48.2%는 우리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이 주권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조차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① ㉠은 집권 세력의 불공정한 권력 집행과 권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의 잘못된 경험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② ㉡은 지역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정책이나 도덕성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④ ㉢은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대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힘이 약화되어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민주 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부패,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 정치적 무관심을 사례와 연결하고 각 문제의 개선 방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 부패는 공적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현상이다.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자질보다 출신 지역을 우선하여 선택하는 행태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이 선거와 정치 과정에 참여하거나 권력을 감시하려는 관심이 약한 상태이다. 사전 투표 제도는 정해진 선거일 전에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여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공직자가 지인에게 체납 세금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으로, 권력의 불공정한 행사와 권력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가 결합한 정치 부패에 해당한다.
② O — ㉡은 정책이나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특정 지역 출신인지를 우선하는 지역감정에 따른 투표를 보여 준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전 투표 제도의 도입'이다. 사전 투표 제도는 투표 편의를 높여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므로 주로 ㉢과 같은 낮은 투표 참여의 개선에 관련된다. ㉡을 개선하려면 지역보다 정책·공약·도덕성·능력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합리적 선거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④ O — ㉢과 같은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의 선거 참여와 대표자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민주 정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전 투표 제도가 선거와 관련된 제도라는 점을 이용한 함정이다. 이 제도는 지역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간·장소의 제약을 줄여 투표 참여를 쉽게 만드는 장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의 문제점과 대책이 직접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지역 중심 선택은 정책·인물 중심의 합리적 선택으로, 낮은 투표 참여는 투표 기회 확대와 참여 촉진으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지역감정은 정책·인물 중심 선택으로 완화하고, 정치적 무관심은 참여 기회 확대로 완화한다.

NoteBase

문 14.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인하하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총수요가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③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개 시장 조작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④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여 경기 과열의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확대 통화 정책과 긴축 통화 정책이 통화량·이자율·총수요에 미치는 방향과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 정책 수단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대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 소비·투자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긴축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여 총수요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대표적 통화량 조절 수단에는 공개 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조정, 재할인율 조정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통화량 증가나 이자율 인하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 통화 정책의 효과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낮아진다'이다.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의 중앙은행 차입 비용이 커져 대출과 통화 공급이 줄어들므로, 통화량은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 공개 시장 조작, 지급 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전통적인 주요 수단이다.
④ O — 긴축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생산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경기 과열을 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재할인율 인상 뒤의 효과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재할인율이 오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므로 통화량 증가·이자율 하락이 아니라 통화량 감소·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 수단의 변화가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지 줄이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유동성 확대는 통화량 증가·이자율 하락·총수요 증가로, 유동성 축소는 통화량 감소·이자율 상승·총수요 감소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재할인율 인상은 긴축, 재할인율 인하는 확대이다.

NoteBase

문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화폐 자산 소유자들이 실물 자산 소유자들에 비해 불리해진다.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전체적 비용 인상 또는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주로 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다.

③ 전체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을 편다.

④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플레이션의 분배 효과, 발생 원인별 특징, 안정화 정책, 대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생산비 상승이나 총공급 감소로 발생한다. 국내 물가만 상승하고 명목환율이 그대로이면 국내 상품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수출에는 불리하고 수입에는 유리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므로 현금·예금 등 화폐 자산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반면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 화폐 자산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② O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임금 등 생산비 상승이나 총공급 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물가 상승과 생산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기 침체를 동반하기 쉽다.
③ O — 총수요 증가로 발생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 지출 축소와 같은 긴축 정책으로 총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입이 감소한다'이다. 환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 상품은 국내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인플레이션이 국내 상품의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방향을 정반대로 서술하였다. 환율 상승으로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와, 환율은 그대로인데 국내 물가만 상승하는 경우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총수요 증가인지 총공급 감소인지 구분한다. 대외 거래 선지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국내 물가 상승이 국내 상품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방향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율 불변·국내 물가 상승은 수출 감소, 수입 증가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기업은 여유 자금을 활용해 3가지 프로젝트 (가), (나), (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갑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에 따르는 명시적 비용과 편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단위 : 억 원)

구분	(가)	(나)	(다)
명시적 비용	200	220	240
편익	240	270	300

①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를 선택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260억 원이다.

② 갑기업이 프로젝트 (나)를 선택하는 경우 순편익은 음(-)의 값이다.

③ 갑기업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

④ 갑기업이 프로젝트 (가) 또는 프로젝트 (나)를 선택했을 때 그 암묵적 비용은 같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각 프로젝트의 명시적 순편익을 먼저 구한 뒤,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 순편익을 암묵적 비용으로 보아 기회비용과 최종 순편익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프로젝트 (가): 명시적 비용 200억 원, 편익 240억 원
프로젝트 (나): 명시적 비용 220억 원, 편익 270억 원
프로젝트 (다): 명시적 비용 240억 원, 편익 300억 원
세 프로젝트 중 하나만 선택하므로, 선택하지 않은 대안 가운데 가장 큰 명시적 순편익이 선택한 프로젝트의 암묵적 비용이 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명시적 순편익 = 편익 -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 포기한 대안들의 명시적 순편익 중 최댓값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최종 순편익 = 편익 - 기회비용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자금이 다르므로 단순히 포기한 프로젝트의 편익 전체를 암묵적 비용으로 보지 않고, 그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었던 명시적 순편익을 비교한다.

계산 과정

1. 명시적 순편익은 (가) 240 - 200 = 40억 원, (나) 270 - 220 = 50억 원, (다) 300 - 240 = 60억 원이다.
2. (가)를 선택하면 암묵적 비용은 60억 원이므로 기회비용은 200 + 60 = 260억 원이다.
3. (나)를 선택하면 암묵적 비용은 60억 원이므로 기회비용은 220 + 60 = 280억 원이고, 최종 순편익은 270 - 280 = -10억 원이다.
4. (다)를 선택하면 암묵적 비용은 50억 원이므로 기회비용은 240 + 50 = 290억 원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가) 260억 원, (나) 280억 원, (다) 290억 원 순이다.

선지 판단

① O. (가)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대안 중 가장 큰 명시적 순편익은 (다)의 60억 원이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200 + 60 = 260억 원이다.

② O. (나)를 선택할 때 암묵적 비용은 (다)의 명시적 순편익인 60억 원이고, 기회비용은 280억 원이다. 따라서 최종 순편익은 270 - 280 = -10억 원으로 음(-)의 값이다.

③ X. 기회비용은 (가) 260억 원, (나) 280억 원, (다) 290억 원이므로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크다. 틀린 표현인 ‘프로젝트 (다)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는 ‘프로젝트 (가)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적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가)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포기한 대안 중 명시적 순편익이 가장 큰 것은 (다)의 60억 원이다. 따라서 두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모두 60억 원으로 같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는 (다)의 암묵적 비용 50억 원이 가장 작다는 사실만 보고 기회비용도 가장 작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만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까지 더한 값이므로, (다)의 기회비용은 240 + 50 = 290억 원으로 가장 크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대안의 '편익 - 명시적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 가운데 그 값이 가장 큰 것을 암묵적 비용으로 정한다. 그다음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으로 기회비용을 구하고, 필요하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 최종 순편익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포기한 최선 대안의 순편익은 암묵적 비용이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은 기회비용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유형의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기가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 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다.
- 실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①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된다.

②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③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④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이 설명하는 경기적 실업을 구조적·계절적·마찰적 실업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총수요와 생산이 줄면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나 기술 변화로 노동 수요와 노동자의 기술·지역 등이 맞지 않아 발생하고,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라 노동 수요가 반복적으로 변하여 발생하며, 마찰적 실업은 구직·이직 과정의 정보 탐색과 시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기 침체로 기업의 생산과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생기는 경기적 실업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산업이 사양화되어 나타나는 실업'이다. 이는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와 노동 수요의 감소로 발생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계절의 변화 때문에 특정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다. 이는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계절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경기적 실업은 계절 변화가 아니라 경기 변동, 특히 경기 침체로 발생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경기적 실업은 구직 탐색 기간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노동 수요가 부족해져 발생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와 ‘주기적으로’가 핵심 단서이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구조적 실업, ‘계절의 변화’는 계절적 실업, ‘직업 탐색’은 마찰적 실업을 가리키므로 원인을 서로 바꾸어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의 직접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경기 침체이면 경기적, 산업·기술 변화와 기능 불일치이면 구조적, 계절 반복이면 계절적, 구직·이직 탐색이면 마찰적 실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불황은 경기적, 산업 변화는 구조적, 계절 반복은 계절적, 직업 탐색은 마찰적 실업이다.

NoteBase

문 18. 경상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상 수지 흑자는 적자를 보게 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② 경상 수지 적자는 대외 채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③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④ 경상 수지는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나타내는데,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의 합을 의미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경상 수지의 구성과 흑자·적자의 영향,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경상 수지에 미치는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상 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과 상품·서비스 및 소득 등을 거래한 결과로, 상품 수지·서비스 수지·본원 소득 수지·이전 소득 수지의 합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이 하락하여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은 비싸지고 수입품의 자국 통화 표시 가격은 싸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 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상대국의 적자나 자국 산업 피해 논란과 연결되어 보호무역 조치 등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② O —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이를 해외 차입으로 보전하면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환율의 하락은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은 감소시키며'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환율 하락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뜻하므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경상 수지를 악화시킨다.
④ O —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를 합한 것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환율 상승의 효과를 환율 하락의 효과로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환율과 자국 통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면 수출입의 방향도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율 하락 → 자국 통화 가치 상승 → 수출 감소·수입 증가 → 경상 수지 악화의 순서로 판단한다. 반대로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뜻하므로 수출 증가·수입 감소와 경상 수지 개선 방향으로 작용한다.

암기 포인트

환율 하락은 자국 통화 강세이며, 수출에는 불리하고 수입에는 유리하다.

NoteBase

문 19. 표의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C는 각각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수익형태 \ 금융상품	A	B	C
이자	○	○	×
배당금	×	×	○
시세 차익	×	○	○

* ○는 기대할 수 있음을, ×는 기대할 수 없음을 나타냄

① A는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② B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간 대량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③ C에 비해 A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④ C는 이자율과는 역의 방향으로 가격이 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에 제시된 수익 형태를 이용해 금융 상품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이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배당금과 시세 차익은 기대할 수 없는 A는 예금, 이자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B는 채권,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C는 주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예금이므로 기업이 발행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이며, 올바르게는 A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고 약정된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② O — B는 채권이다. 채권은 거래 단위가 크고 장외 거래의 비중이 높아 개인 투자자보다 금융 기관이나 법인 등 기관 사이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③ X — C는 주식이고 A는 예금이다. 틀린 표현은 'C에 비해 A는 안전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이며, 올바르게는 일반적으로 예금은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
④ X — C는 주식이므로 이자율과 가격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C는'이며, 올바르게는 B인 채권의 가격이 시장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B와 C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만 보면 둘을 혼동하기 쉽다. 배당금이 있으면 주식이고, 이자가 있으면서 배당금이 없으면 채권이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또한 시장 이자율과 가격의 역관계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의 대표적 특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배당금 여부로 주식을 찾고, 남은 상품 중 이자와 시세 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채권으로 판단한다. 이자만 기대할 수 있고 시세 차익이 없는 상품은 예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금은 이자, 채권은 이자와 시세 차익, 주식은 배당금과 시세 차익으로 구분한다.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20.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부가 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②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③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④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면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는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를 과세 주체, 과세 영역, 세 부담의 이전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직접세와 간접세를 각각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고, 간접세는 조세 부담이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 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조세이다.

핵심 구분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이자 내국세이며,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국세는 과세 영역을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세 세목을 모두 지방세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올바른 표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② O
내국세는 관세와 달리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재산·소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속한다.

③ O
소득세와 법인세는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같으므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④ O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 간접세는 같은 가격의 과세 상품을 사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그 세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커질 수 있어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①의 '부가 가치세'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와 혼동하기 쉽다. 이름에 소비가 들어가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간접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세 주체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법률상 납세자와 실제 부담자의 일치 여부를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한다. 같은 세목도 서로 다른 분류 기준에 동시에 속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섞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취득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내국세·간접세이다.

NoteBase